

제7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0. 7. 27. [월] 09:30 ~ 12:30
장 소	전주시청 4층, 회의실
참 석 자	위원장 등 11명 [재적인원 11명 중 11명 참석]
주요내용	○ 홈페이지 게재를 위한 제4차, 제5차 회의록 검토 ○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구성[인원수, 선정방법] 논의 ○ 시민공론화위원회 의제 범위 논의 ○ 차기 회의 일정
회의결과	○ 제4차, 제5차 회의록 확정 ○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구성 - 인원수 : 총32명, 각 그룹별 9명씩 - 구성 분야 ▸ 정책·도시관리(8명) : 행정(3), 거버넌스(3), 시의원(2) ▸ 도시계획(8명) : 도시계획(2), 교통(2), 환경(1), 조경경관(2), 부동산전문가(2) ▸ 지역경제(8명) : 소상공인(3), 상공회의소(1), 상공계(2), 문화관광(2) ▸ 시민(8명) : 주민(4), 시민 및 언론단체(3), 주민자치협의회(1) - 선정방법 : 각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이나 시민 공모 등을 통해 2~3배를 모집한 뒤 추천을 통해 최종 선정 ○ 차기 회의 일정 - 2020. 8. 6.[목] 09:30 ~

제7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 개 회

발 언 자	발언 내용
간사	- 금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공론화위원회 재적인원 총 11명 중 현재 11명 모두 참석해서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 오늘은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번에 의견을 주신대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 자격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간사라고 밝히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 위원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이번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공론화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모집공고가 나와서 7월 24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7월 31일 17:00까지 접수받고 있으니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역할해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안건이 되겠습니다. 1차 안건은 시나리오워크숍에 대한 진행 절차, 논의 범위 등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 △ △) - 저번 회의 때 각 위원님들께 부탁드린 사안 중 ○○○ 위원님께서 준비해주신 내용을 설명 듣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시나리오워크숍에 대한 진행절차, 논의 범위 등 안건

발 언 자	발언 내용
○○○ 위원	- 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워크숍에 대해서 큰 틀의 방향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흐름을 알고 계시면 훨씬 좋을 거 같다는 생각에서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 워크숍 참여자는 지금까지 4그룹으로 의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도시관리, 도시계획, 지역경제, 시민 이렇게 4그룹으로 각 그룹별 7~8명 정도로 선정되면 28~32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일단, 전체적인 워크숍은 주관은 공론화 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용역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사회자, 모더레이터, 진행요원 등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생각할 때 사전준비위원회부터 논의해온 의제 범위가 조금 넓은 것 같습니다. 진행 일정이 2일은 조금 빠듯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숙박을 하지 않는 전제하에 3일 정도는 되어야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 전체적인 워크숍 진행절차입니다. 처음에 시나리오워크숍 참석자 전체를 소개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를 했는지 먼저 소개를 해야 하고, 그다음 그분들에게도 공론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공론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추진배경, 경과, 공론화 위원 소개 등을 합니다.
- 그다음 시나리오워크숍에 대해서 소개와 규칙을 설명하고, 시나리오워크숍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지,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등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후 본격적으로 공론화 의제를 설명합니다. 전주 시민들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 이미 많이 알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며, 책임감을 갖고 임하기 위해서는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설명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후 질의응답 시간이 필요합니다.
-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 세부 의제를 5~6가지 정도 확정을 했으나, 모두 시나리오워크숍에 다 담아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려면 시나리오가 상당히 복잡해지거나 너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워크숍에서 논의해야 할 각 의제별 깊이의 정도도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개발이익 환수방안이란 의제만 하더라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환수할 건지, 적정 비율은 얼마가 될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깊이 들어가면 그 시나리오는 또 각각 다 찢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명확히 방법론적인 구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시나리오 의제에 대한 쟁점별 사안은 사전준비위원회에서부터 결정한 사항을 소개하고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나서 전반적으로 공유가 되면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먼저 시나리오 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 작성 전제조건, 합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도출됐을 때 그것을 합의를 통해 좁히려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건지, 만장일치, 다수결 등을 통해 의견을 좁혀야 될 필요가 있다면 어떤 의결 방법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참여자들하고 이야기해서 시나리오워크숍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전제조건, 상세기준에 대한 논의시간이 필요합니다.
- 다음, 첫 번째로는 미래비전 수립이 필요합니다. 전주시의 옛 대한방직 부지는 어떠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느냐 향후 이에 대해

그룹별 비전을 수립하고 공유하고 차이점 공통점을 확인하고 토의를 거쳐서 비전을 확정하고, 어떻게 의견을 좁힐 것인지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진행팀과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후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작성단계에 들어갑니다.

- 그러면 비전을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비전이 큰 방향으로 나오면 그 비전별 시나리오를 할 수 있게 그룹을 재편성하거나 그렇지 않고 합의 비전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그룹별로 그대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워크숍은 이해관계자를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첫 번째 토론할 때는 이해관계자별 그룹으로 구성되는 것이 맞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하되 첫 번째 비전 토의 시 어떤 방향이 몇 개가 도출되면 그 방향에 동의하시는 그룹들이 모여서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비전의 정도는 큰 틀의 방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될 수 있는 문구가 나오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 그다음에 구체적 시나리오 작성단계에서는 비전을 반영해서 의제별 시나리오 작성을 하는데 위에서 제시한 의제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예전에 의제를 정했기 때문에 그 방향을 갖고 하되 너무 넓지 않게 몇 부분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왜냐하면 시나리오워크숍을 계속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기간에 하고 그다음 단계인 공론조사 방식을 또 해야 하므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시나리오가 작성되면 그룹별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그때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나온다면 그 그룹별로 재편성이 가능하며 거기에서 다시 차이점, 공통점을 확인하고 유사한 시나리오는 다시 통합합하거나 하는 합의 절차를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나리오가 몇 개가 되든지 그 시나리오에 대한 장단점 토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성, 장단점 토의를 하고 전체 토의결과를 공유하고 다시 한번 수정 기회를 줘서 최종적으로 전체 토의 후 각 시나리오를 확정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의제에 대한 공부 시간이 충분해야 할 것 같아 워크숍 기간을 3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일정상 첫날이 조금 빠듯하긴 한데 미래 비전을 그리는 시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미래 비전이 하나로 나오면 좋겠지만, 의견이 나뉜다면 다음날에 그룹별 재편성 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룹별로 토의하고 계속 새로운 의제별로 논의하며, 마지막 날에는 어느정도 시나리오의 윤곽이 나오면 이에 대한 장단점, 실현 가능성 파악 후 최종적으로 시나리오를 도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보니다만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 일단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나리오워크숍 소개 및 규칙 설명하고 그다음에 의제에 대한 설명, 쟁점들을 그날 바로 주나요? 아니면 미리 선정된 분들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해서 공부를 하고 올 수 있는 시간을 주나요?
○○○ 위원	- 전문가 발표 자료나 공론화 의제에 대한 설명, 의제 쟁점별 소개, 공론화에 대한 소개 등 이런 사항들은 미리 줄 수 있다면 더 좋죠. 미리 공부하고 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오늘 ○○○ 위원님이 그동안 공부를 시켜주셔서 발표하신 내용이 이런 방향일 것이라고 알긴 알았는데, 지난 회의 시에는 의제별 개발 방향 및 적합한 용도변경, 기반시설 확충, 개발이익 환수 및 지역상권 이 4가지 의제가 어떤 용도로 구상하는지에 따라 조합이 많아질 것 같아서 미래상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토지이용에 대한 구상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기반시설, 개발이익, 지역상권 등에 대한 논의는 밑으로 붙이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위원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직한 미래상은 조금은 추상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가 활성화된 전주를 원하는지, 전통을 부각되는 전주를 원하는지, 환경친화적인 전주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밑에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보면 바람직한 미래상은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추상적이고 뭔가 큰 틀의 광범위한 이런 식의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히려 두 개를 합해서 합의를 만들 가능성은 커요. - 그 전주 시민들이 향후 바라보고자 하는 방향성은 거의 비슷할 거 같아요. 트리구조에 따라서 쪽쪽 나누어지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떤 범위까지 포괄할지에 따라서 또 무수히 많은 가지 치기가 가능하는 말입니다. - 그것을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하게 할 것이냐, 그래야만 합의가 좀 더 쉽지, 그 가지를 무한대로 열어놓고 토의해보라고 하면 시나리오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 위원	- 두 가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간,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저 일들을 모두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여기 여러 의제 중 가장 중요한 게 미래상에 따라서 토지이용의 방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진다면 의제의 범위는 좀 좁혀 주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 그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 지금 시나리오워크숍 절차 중에 실현 가능성, 합리성, 타당성이 있는데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시나리오별 장단점,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워크숍에서 참여자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문단이나 전문가가 참여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워크숍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자문 의견을 검토해서 시민참여 단에게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	- 토론을 하다보면 아무리 숙의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토론을 할 때 어떤 안을 내면 그거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야 원하는는 우리가 숙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장점, 단점 그리고 보완할 점, 장애 요인 정도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100%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하냐, 타당하냐, 합리적이냐 이렇게까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장단점 토의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 중에 하나는 광범위하게 이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이야기를 해봐라. 그리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는지, 즉 단점을 보완한다는 건 어찌보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크게 접근을 한다는 거고, 엄밀하게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실현 가능하냐라고 하면 이러한 것은 거기에 계신 토론자들이 어떻게 실현하는지 가능한지 타당한지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기술전문가들이 붙어줘야지만 그게 어떻게 보완되고 이러는지가 가능하잖아요?
○○○ 위원	- 워크숍에 기술전문가가 붙는다는 말씀인거죠?
○○○ 위원	- 네, 포함되어서 일부 의견은 드릴 수 있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현 가능할 수 있는지 타당한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주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 위원	- 그럼, 거기서 명확하지 않으면 그 시나리오가 잘못된 방향이나 아예 백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 위원	-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 그러나, 공론조사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시나리오에 대해 전문가 검토의견을 받아서 그 안에 대해서 이게 각각이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뭘 보완해야 하는지 그 전문적인 의견을 붙여서 자료로 시민들에게 제공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숙의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고 생각을 좀 더 넓힐 수 있다는 거죠.
○○○ 위원	- 그러니까 ○○○ 위원님께서 만약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나리오가 3개 나왔다고 하면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실현 가능성, 타당성, 합리성을 의견 제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론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절차인 거죠?
○○○ 위원	-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 안을 냈던 참여자 조차도 자기들이 만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주면 더 깊이 있게 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대부분 공론화를 해보면 자기들이 안을 냈는데 그 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수용하지 않잖아요. 저분이 전문가 맞아?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의견이 상당히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전문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되게 조심스럽고 그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들도 저 전문가가 얘기하는게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 그래서 그 전문성이라는 게 정말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장단점 토의를 해서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썼지만 이 시나리오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문제점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본인들도 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실현 가능할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애 요인이 있는지 뭘 보완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내면 훨씬 더 전문가들이 그걸 검토하고 의견을 주는데 부담을 덜 수가 있다는 거죠.
○○○ 위원	- 저도 3일은 찬성입니다. 사실 우리도 쉽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이틀에 다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것 같은데 그다음이 문제잖아요. - 그런데 그다음에 4가지 시나리오 의제도 저희가 합리성,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기반시설, 개발이익, 지역상권인데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그냥 기반시설에 대해서 논의하시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기반시설 목록이라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발이익도 환수하는 방법이나 범위라던지 어느 정도는 줘야 되는데 이걸 또 너무 구체적으로 주면 우리가 주도한다는 비판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하위 부분에서 방향과 용도변경

	까지는 본인들이 논의할 수 있지만 3가지 하위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 안에서 일정한 예시 정도는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방금 나온 전문가 문젠데 그룹별 시나리오가 나오고 나서 장단점 실현가능성 토의를 할 때 그룹별로 토의를 할 때도 그렇지만 저는 전문가가 와서 개별 시나리오에 대해서 내용을 평가하기 보다는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신들의 시나리오나 다른 그룹들의 시나리오를 보고 이러저러한 주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일텐데 그런 부분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전문가가 개입하는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위원	- ○○○ 위원님, 여기서 전문가라고하면 저희는 아닌거죠? - 객관적 입장에서 전문가가 참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거죠?
○○○ 위원	- 네, 지난번에 좋은 의견 중 하나가 기술지원단?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 위원	- 그리고 저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틀어서 기반시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이런걸 기반시설이라고 하지만 가장 핫이슈가 되는 것은 도로교통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이라고 하지 않고 교통이란 것에 한정시켜도 될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그리고 저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개발이익을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 내용도 법적 내용인데 법적 한계 수준을 더 넘어서야 한다. 오히려 저는 ○○○ 위원님한테 부탁했던 계획이득에 대한 논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 위원	- 계획이득이 지금 현재는 공업용지인데 35년에 주거용지로 되고 또 자광(안)대로 하면 상업용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계획이득은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되면 개발이익만 있고 계획이득은 없는 건지 아니면 둘 다 주거용지가 되든 상업용지가 되든 개발이익 + 계획이득이 있는 건지 좀 헷갈리네요.
○○○ 위원	-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계획이득이라고 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용적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지에 있을 때 700%고 상업용지일 때 1000%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광에서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그걸 알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현재 공업용지가 용적률 300%이니 그 300%를 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용적률로는 계획이득을 갖다가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 그러나 또 계획이득이라는게 그런 용적률 뿐만 아니라 계획에 의해

	서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명확하게 학술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는 논문들, 그리고 ○○○ 위원님께 의견을 한번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미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서는 사전협약이에요. 그게 이제 조례가 있어야되고 조례에 의해서 사전협약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밀고 당기고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님 어떻습니까?
○○○ 위원	- 계획이득은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처음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 부지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한 2조 정도 용도지역 변경분에 대한 계획이득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을 해서 전환을 시켰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넘어가는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계획이득을 받을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공공이 결정을 한 영역이고 거기서 공공의 이익을 따로 별도로 환수할 수 없고요. 다만 전주시가 방향을 정한 주거용지가 아니라 상업용지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용적률에 몇 %를 계획이득으로 환수할거나 이런 방식들이 결국은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용적률 증가분의 60% 정도를 환수하는 방식인데 전주시는 도시적 특성이 다르니까 그런것들을 감안을 하셔야겠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 만약에 계획이득이란 의제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제도적인 장치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 위원	-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니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주시가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날 줄 모르니 ○○○ 위원님께서 먼저 좀 선점을 하시라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 위원	- 지금 3일간 시나리오워크숍이 실행되는데 오늘 의문사항이 생겨서 다음날 답변을 한다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문가분들한테 여기에 대한 쟁점들을 검토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물어볼 때 답변을 주시면 가능할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계획이득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 대한방직 부지를 보면 지목이 전부 다 대지예요. 그리고 잡종지와 구거가 있는데 잡종지와 구거는 면적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조건이 발생이 되는데 이걸 지금 용도지역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용도지역이 바뀌는 것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사업의 종류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발생이 되는 대상이 되는 대상 사업들이 있습니다. 별표에 나와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찾기가 어렵드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한 데가 있거든요. 이것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대상이 되는지 그런 검토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 일반적인 사항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익하고 공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 규모를 만약에 공원화라든지 어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사업시행자는 이걸 분양하는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우리가 계획이득이든 이런 법률에 의해서 환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방식으로 환수를 할 때 자광이라는 회사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주민들한테 전가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상업시설을 분양받는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공공이익 부분을 다시 보정화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적정의 이익을 조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몇 %로 해라 이것도 저는 위험한 것 같고 만약에 제도적인 장치로 가야한다고 한다면 종합적인 사례를 검토를 해서 용적률 기여분의 몇 % 정도를 환수한다라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게 해야될 거 같습니다. 얼마로 환수해야 된다고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 위원	- 관련해서 이렇게 나누면 될 거 같습니다. 법률적 개발이익과 계획이득 등의 법률적 카테고리 안에서 정할 수 있는게 있는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법적 소송쟁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게 하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 또 하나는 이게 공론화위원회로 왔다고 하는건 일정정도 협의에 의한 개발이익의 추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거라고 하는 전제조건, 그러니까 서울시처럼 사전 협조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일정정도 조례나 법에 기초하지 않지만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를지라도 자광이 주장을 했다는 것은 타협, 협상의 가능성이 남겨됐다고 생각을 해요. - 그 다음에 개발이익의 형태로 주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량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셋백 등 이런 장치에 대한 요구,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올 때 조금 억지스럽기는 했지만 저쪽 천변 다리를 하나 놓도록 했거든요. 그게 있고요. 만약에 상업용지로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 물론 용도변경에 의한 계획이득이라는 개념을 쓸 수도 있겠지만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그것에 대한 지역경제에 보호차원에서 기금 내지는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무적, 협의적 차원이 남아있

	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주장할 것과 협상에 의해서 주장할 것을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저도 ○○○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전문가여야 하며 만약에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얘기를 묻는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광은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해서 이정도로 제시를 했다 그런데 적정하다고 보느냐 적정하지 않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그런 류의 물음, 그러면 적정하지 않다고 본다면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는가? 법적 외에, 무엇을 더 요구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그런 큰 물음은 한번 해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의 이야기를 우리가 개발이익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를 일단 정할 때, 아까 법적 근거가 되는 그런 기준에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안에 붙을 수 있지만 -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할 때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계획이득 등을 포함해서 상권영향 등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부채납 등에 개발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보는거죠.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논의를 한번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자료에서 개요, 참석자 소개, 공론화 이해, 시나리오 의제 정정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시나리오 작성의 미래비전 수립까지는 큰 이의가 없으시죠?
○○○ 위원	- 진행 규칙하고 진행 방법은 문서화 해서 주실거죠?
○○○ 위원	- 네, 용역사에서 만들어서 제시 주실거예요. -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수정할거면 수정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 위원	- 미리 만들어서 참여자들에게 나눠줄거죠?
○○○ 위원	- 아니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시나리오 작성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안은 드리는데 그거를 그냥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게 이렇게 할거야 하고 안을 드리기 보다는 안을 주고 거기서 수정의견을 받아서 수정보완 할 거는 전체들이 동의하는 규칙안을 정하는게 훨씬더 수용성이 높습니다.
○○○ 위원	- 전체가 모인데서요?
○○○ 위원	- 네

○○○ 위원	- 그리고 시나리오 작성 전제조건 및 합의기준 저것은 참석자가 합의 기준을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도출하는 겁니까?
○○○ 위원	- 위원회에서 안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절차에 만약에 수정의견이 있다면 보완 가능 하구요.
○○○ 위원	- 일단 그러면 먼저 저희들이 안으로 줘야 되네요. - 그러면 미래비전 수립에 대한 것까지는 크게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 위원	- 지금 워크숍하시는 분들이 전체에 공유를 해야 될게 있고 그룹별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룹별로 한걸 또 가지고 와서 전체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다시 말해서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지금 이러네요?
○○○ 위원	- 네, 그게 시나리오워크숍의 핵심이고 숙의 과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룹에서만 논의가 돼서는 전체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니깐요.
○○○ 위원	-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나 아까 기술지원단이라던지 이분들도 시나리오워크숍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요?
○○○ 위원	- 우리도 있어야죠.
○○○ 위원	- 다만, 위원회는 거기서 의견을 드리기는 쉽지 않고 주관하는 것이니 이게 잘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여기서 뭔가 분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참석자들이 위원회한테 요청하는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지금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뒤에 얘기 드리려고 하거든요. 끝날 때 쯤 말씀 드릴게요.
○○○ 위원	- 아까 처음에 다른 것보다 비전을 만드는 것이 쉽다고 그러셨는데, 추상적이니까 그런가 본데 그런데 상권이나 아까 말한 도로교통 문제라던지 이런 것이 되어야 그다음에 토지용도가 논의가 되는 거지, 토지용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상권에선 아무것도 모르고 도로 교통에서도 모르는데 용도만 가지고 막 논의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되요. 먼저 이뤄지는 게 상권이나 도로교통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다음에 토지 용도에 대해서 “아 그렇게 되려면 토지용도가 이렇게 되어야 겠구나.” 토지용도가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개발이익이라던지 이런 것을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 같아요. 단계별로.

○○○ 위원	- 그래서 현황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 공론화 의제에 대한 설명, 거기에 공론화 의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현황, 거기에서 현재 대한방직 부지에 관한 교통 문제, 상권,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제출해주시면 이후에 뒤에서 여기가 지금 도로가 복잡하니 여기 도로를 보완해야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단에서 현황 부분들을 소개해주고 자연스럽게 연계시키는 것들을 작업을 하는거죠.
○○○ 위원	- 네,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맨 밑에 그룹별 작성된 시나리오 발표 및 확정 이렇게 시나리오들이 몇가지가 나올텐데 그걸 가지고 공론조사를 하는거죠?
○○○ 위원	-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릴려고 했던 부분이 그 지점이거든요. - 시나리오워크숍에 참석하신 분들도 궁금한게 과연 우리가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결과물을 내면 그것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되요. 이 시나리오가 한 개 나올지 두 개 나올지 세 개 나올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공론조사에서 시민들에게 그걸 어떻게 물어볼지 사전적으로 그거를 분명히 정하셔야돼요. - 그러니까 그걸 안 정하면은 시나리오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게 몇 개가 나오면 좋은지 아니면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결정이 되는건지 궁금해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최대한 시나리오를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팀에서는 우리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시나리오를 채택할 수 있게끔 뭔가 고려해서 해야되겠다 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 그래서 위원회에서 만약에 시나리오가 3개가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냥 하나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각각에 대해서 선호도를 구해서 그 중에 선호도가 가장 높은 걸로 할 것인지, 선택할 때의 기준도 3개면 1/3이 넘어가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과반수를 넘어야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1%라도 많으면 선택할 것인지 그거는 사전적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죠.
○○○ 위원	- 그러면 그거에 연계해서 궁금한 것이 시나리오 안이 나와서 설문안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매우 복잡한거 같아요.
○○○ 위원	- 전화조사로 하는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민참여단이 모여가지고 다시 120명이 모여서 토론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오프라인으로요. 모여가지고

○○○ 위원	- 시나리오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28~32명인데 그분들 말고요?
○○○ 위원	- 일반 시민이요. 저번 과업지시서 논의할 때 정했던 120명이요
○○○ 위원	- 네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다 풀렸습니다.
○○○ 위원	- 여기서 그룹은 뭘 의미하는건가요?
○○○ 위원	- 초기 4개 그룹인데요. 중간 중간에 안이 몇 개가 나오냐, 내가 이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재편성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그룹 재편성 가능이라고 써놓은거예요.
○○○ 위원	- 아까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조합만 해도 그룹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용도변경이 공업용지로 그대로 놔둘거나, 주거용지로 할거나, 상업용지까지 갈거나 중간을 섞을 거냐 이런 정도로 3~4개가 되면 그 다음에 그 용도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시설, 상권, 개발이득 이런 것들이 붙어 가는게 아닌가, 최소한 시나리오에 종류를 미리 좀 예측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밑에 가서 엄청 많아질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위원	- 제 생각에는 시작은 4개 그룹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래상을 얘기하라고 하면 4개 그룹 내에서도 합의가 안되서 각각 2개씩 내 겠다고 하면 최대 8개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또 예를 들면 A그룹하고 B그룹하고 미래상이 비슷해 하면 합칠 수도 있는거 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정하랴수 있는 것은 각 그룹 별로 스타트한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시나리오가 나오는 걸 보고 저희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거죠.
○○○ 위원	- 나중에 공론조사까지 할 거 같으면 시나리오가 너무 많이 나오면..
○○○ 위원	-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는 되죠. 지금 생각에 A, B, C, D그룹이 시나리오를 냈는데 일반적으로 각 그룹별로 1개씩 4개가 나왔다고하면 이 4개의 시나리오가 유사한 그룹끼리 묶어서 한 3개으로 묶을 수 있겠다고 하면 그룹을 이 4개의 그룹을 해체를 해서 시나리오 별로 3개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거다라고 ○○○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거죠.
○○○ 위원	- 그렇게만 가면 좋은데 저는 또 거기에서 같은 주거용지라고 해도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득, 지역상권 이렇게 또 달라지면 그게 하나의 콤비네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 위원	-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시뮬레이션을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비전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비전을 내놓을 것인가, 그 비전에서 다음에 개발 방향은 어디 갈 것인지 일단 흩뿌려놓고 보면 계속 이렇게 가지를 치다 보면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아 저게 합쳐질 가능성이 있고 시나리오의 정비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있고 또하나 그 사이에서 중간중간 나올만한 질문들도 100%는 예측을 못해도 어느 정도 예측되어야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술지원단이라던지 그사람들한테 준비할 시간도 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디지전 트리는 한번 풀로 펼쳐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용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봐요.
○○○ 위원	- 의외로 그렇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 위원	- 그 부분은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3개의 부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논의를 할 건지 가지치기에 대해서 3부에 또 3부를 늘여놓고 그냥 바운더리를 없애고 다 토의를 하게 할건지, 거기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논의하게 할 건지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전체적인 과정, 절차가 좀 이해되셨으면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의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볼 때 용도에 대해서는 저는 6가지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 ①다운조닝, 녹지지역으로 가자 ② 현 주거용지로 가자 ③ 상업용지로 가자. 크게 틀은 3가지 일거 같아요. 그런데 왜 6가지라고 했냐면 '일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부 다운조닝, 일부 주거용지, 일부 상업용지로 하면 용도에 대한 미래상은 한 6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 크게 3개 정도의 미래상 정도로는 합쳐질 수 있다라고 봐요. 다운조닝 녹지지역으로 갔을 경우에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운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거용지로 갔을 때에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 용지자체가 주거용지이고 거기에 맞춰서 상수도, 하수도를 계획을 해야되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상업용지로 갔을 때에는 이게 문제를 줄여본다면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교통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문제, 지역 상권에 대한 문제는 전제가 상업용지로 간다는 전제 하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 위원	- 그럼 공업용지는 첨단공업용지라던가 이거는 빠지는 건가요?
○○○ 위원	- 아니요. 있을 수 있죠. 첨단공업용지도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뉴딜사업에 의해서 첨단공업용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봐 지네요.

○○○ 위원	- 저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정하고 예상되는 거를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 시나리오워크숍에 들어가면 실제로 작동될게 무엇인가가 저는 눈에 보여요. 저는 사전준비위원회에서 부터 참여하면서 가지고 온 딜레마가 여전히 안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문가+시민이라고 해도 한데도 이미 자광 안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걸 제외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광 안에 빠지지 말자고 한 건 - 첫 번째 공론화위원회든 어떤 형태든 여기는 심의, 결정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광 안을 보되 자광 안에 빠지지 말고 큰 틀에서 전주시를 위해서 대한방직 부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활용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자광 안을 정확히 이해 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빠지지 않는다, 아니면 이 찬반논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 두 번째는 좀 더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와 원칙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시나리오가 좁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원 문제 같은 경우도 수용가능성 앞에서 토론을 해보면 사적소유지이기 때문에 그 주장이 소수 안으로 정말 기록되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부러 막을 필요는 없다는 거고, 이처럼 자유롭게 열어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워크숍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아까 ○○○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상권영향, 뭐가 들어와야죠. 상업지구로 했을 때 상권영향이 나타나는 거죠. 즉 어떤 계획적 이게 확정되지 않으면 정량적으로 확장할 수 없는 이런 기술적이고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에 이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상업범 위라고 하면 이 정도로 상권영향이 나온다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 해주고 그걸 고려해서 토론을 하라고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 그래서 이게 실제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들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너무 깊이 하면 저는 3일이 아니라 30일 해도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현실적인 작동 범위를 놓고 저는 이야기를 해야된다고 봐요.
위원장	- 그러면 제가 ○○○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할 좀 하면 일단 자광 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야 된다. 두 번째 미래상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넓게 얘기할 시간을 갖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반시설, 개발이익, 상권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의 물음과 그런 정도의 결과만 도출하면 된다. - 이 세가지 이죠. 저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 위원님이 얘기하신 방향에 대해서 나는 조금 달리 생각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조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다른 생각은 아니고요. 저도 ○○○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시나리오워크숍을 하기 전에 저희가 앞으로 5번을 회의를 더 할 겁니다. 저희가 12번을 숙의를 하고 토론을 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들을 시나리오워크숍에 다 반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거다. 그래서 저희가 시나리오도 좀 좁혀보고, 시나리오에 범위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자. 의제 순서를 재배치 해보자라는 부분들입니다.
- 그런데 결국은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주어져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설계도를 짜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사흘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일 거고, 그분들이 습득한 정보 내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건데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너무 넓혀 놓으면 중구난방, 이도저도 안될거 같더라는게 오늘 주로 이야기하신 부분이어서,
- 저는 원칙에서 그러면 초반에 사전 공유 그다음에 시나리오 작성 이거를 재구조화 하는 3단계로 크게 나뉘보면 이 사안에 대한 공유문제에 상당 부분 많은 에너지를 시간을 써야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안에는 아까 말한대로 자광 프레임에 갇히자는 것이 아니고 자광의 개발계획에 대한 정확한 이해, 뭐 여기에 장단점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겠죠. 현실 가능성 문제라던지
-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 중에 우리가 공유하고 미래비전까지 만드는데 하루, 시나리오를 만들고 뭐하는데 하루, 그리고 최종 합하는데 하루,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 부분을 하루 반을 미래비전까지 가는데다가 전략적으로 여기다가 시간을 많이 쏟아 붓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두 번째, 저도 논의가 저희가 급해지니까 저희가 마치 시나리오워크숍참가자 같은 느낌이 드는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이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해서 모든걸 알아야 되고 자광의 재무구조가 얼마나 외부로 들어온 불안정한 구조인지 이것까지 저희가 다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인데 이 기반시설은 도대체 정확하게 개발계획도 만나와 있는데 뭐가 용량이 얼마나 되고 이 이야기까지 저희는 가는 겁니다. 물론 심판을 볼려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일반화시키려면 저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시나리오워크숍 참여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다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찌보면 가이드라인을 숙의과정을 통해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디테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거고 디테일한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권고문을 만들어내서 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한방직 부지의 약간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전략전술 과제가 이정도 되는 부분들을 시에다가 제시를 하는게 맞다라는 판단에서 결론을 놓고 보면 이 3단계 프로세스에서 비중차가 있을거니 저는 앞부분이 굉장히 잘 설명하고 질의응답하고 토론을 시키는게 앞부분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 또 다른의견 있으실까요? ○○○ 위원님?
○○○ 위원	- 저는 결론부터 생각을 하는거예요. 자 공론화위원회 끝나가지고 공론조사를 다 했어요. 그러면 어떤 안이 나오든 시와 자광만 남겠죠. 그런데 시와 자광이 어떤 협의를 하던 어떤 인허가를 내주던 문제는 시민들 내지는 의회,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걸 해야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고 시민들도 동의했다 이게 아니면 어떤 행위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 그러니까 저는 좋은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과연 자광의 안이라는게 합리적인가, 그걸 시가 인허가를 해줘야 하는 건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결론 안에서 새로운 안으로 제시가 되면서 “이건 자광 안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안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든 시나리오라는 결론은 그렇게 나타난다고 봐요. - 다만 그 시나리오를 시와 자광이 협의해서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가능성 여지만 있는 거지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도 사실은 시민들이 보기에 공론화위원회 뭘했어?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 그래서 기술적인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 위원	- 저는 조금 다르게 나중에 시민들이 평가를 할 때 너무도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했을 때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했냐, 사실은 이것들이 가지고 올 구체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서 그런 것까지 정확도를 검토해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해야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 물론 그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는가? 저는 낮다고 봅니다.
○○○ 위원	-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아까 제가 자꾸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는 얘기가 실제로 개발방향, 용도변경, 비전이 나와서 비전이 A, B, C가 나오고 비전 A에 대해서 개발방향, 용도변경 나오고 이걸 범위에 포함시킬 건지 말것인지 용도변경 A가 나와서 기반시설 핵심 필수 시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걸 범위에서 우리가 예시 할건지 말건지 이런 논의를 해 가는데 차라리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지금 우리는 구체적인 그림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두루뭉술한 접근만 하고 있다보면 얘기가 계속해도 안끝날거 같아요.
○○○ 위원	- ○○○ 위원님은 지금만이라도 어떤 상황이 나올지 한번 우리끼리라도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이죠?
○○○ 위원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각자의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는거죠.
○○○ 위원	- ○○○ 위원님께서 여기 시나리오 작성을 한 부분과 지난번에 주신 논의 자료에 비전부터 쭉 나와있는 절차들이 있고 사전준비위원회가 6가지 의제 가능성에서 제시한게 있기 때문에 6가지 의제 가능성 중에 일부는 자료집에 들어갈 내용, 일부는 논의할 내용 이런 것 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나누신 얘기도 중요하지만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 위원	- ○○○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이 제시한 자료제공 등, 사전설명을 할 때, 자광 안을 명확하게 설명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다만, 누가 발표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에서 저는 자광이 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객관적인 것으로 자료를 놓고 설명을 하던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 정도는 정해 놓고, 자광 안에 대해서는 이런 안이다,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궁금한 점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 위원	- 저는 발표 방법과 발표자에 대해선 조금 여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광 안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까지 하고, 자광이 들어와 발표하게 할 것인가 아닌가는 방법론의 문제거든요. - 나중에 수용성 문제까지도 가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광에서 발표를 하되, 어떤 카테고리를 주고 설명을 하게 하느냐의 방법론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고, 제3자가 발표를 할 수 있는 방안 등 여지 좀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여지를 좀 남겨주되, 다만 자광 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 자광이 참여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자광이 직접 설명을 할 것이냐는 좀 전에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광의 의견에 휩쓸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광 안을 어떻게 객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선 위원회에서 많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자광이 이 문제에선 빠질 수 없는 당사자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자광을 공론화 과정에 끌어들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끌어들이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끌어들이지가 중요한 점입니다. - 그래서 시나리오 워크숍 참석하는 사람 중에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고민했을 때에는 일부 예를 들어 경제 관련 그룹 속에서 개발하는 업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추천한다든지 등에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도 고려하면, 자광도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미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을 거부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 자광 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하고, 그러나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토록 하고, 다만 자광 안에 대해서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시는 거죠?
위원 모두	- 네
○○○ 위원	- 자광 안을 소개하는 것은 좋습니다. - 자광이 주장하는 내용 못지않게 자광 안에 대한 문제점들 그것을 균형 있게 같이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 그러면 자광 안을 보여주고 균형에 맞추어서 자광 안이 가지고 있는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줘야 한다는 전제하에 자광 안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님이 지금 가 봐야 하시기 때문에 다음 회의 일정을 잡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6일 오전 9: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 위원님이 준비해오신 안을 보고 논의하겠습니다.
○○○ 위원	- 제가 일단 개략적인 안으로 그룹별 분야를 생각해봤습니다. - 저희가 4개 그룹으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그룹은 해당되는 분야가 너무 많고, 어떤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일단 정책관리 그룹은 일단 전·현직 공무원, 시정연구원, 거버넌스 조직, 시의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시의회의 경우는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선 선택의 폭이 적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정책 관리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두 번째는 도시계획 그룹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시에서 다울마당과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지난번에 도시계획 그룹이 공학적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었고요. - 그다음에 인문학적으로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되어서 문화 관광을 다음의 지역경제 그룹에 포함했습니다. - 지역경제 그룹은 핵심적으로 소상공인, 상공회의소, 상공계로 정리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민 그룹은 일부 공모로 하기로 해서 기준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시민단체에 대한 부분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청년세대를 반영하여 청년이 포함되면 좋을지 - 이 시나리오 참여자 구성 부분을 작성하면서 원래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가 전문가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는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요? - 시의회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추천 공문을 보내면 되나요?
전주시 관계자	- 일단은 추천을 통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 위원	- 그러면 굳이 상임위는 필요가 없잖아요? - 전주시의회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참여자 구성안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 보통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개인의 입장으로 참여 하기보다는 그래도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그렇다고 하면, 현재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 구성(안)은 특정한 분 을 지정한 것인데, 저는 상당히 위원회가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 생 각합니다. - 왜냐하면, 위원회가 특정한 분에게 참여 요청을 하는 것은 왜 특정 해서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로 구성했느냐며 상당히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저의 생각은 시 의회에 추천을 요청하는 방식처럼 차라리 소속단체에 위원회가 공문을 보내 적정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 하는 방식이 훨씬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7~8명으로 그룹이 되어 있으니, 8명이 된다는 전제하에 의원은 시의회에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만약에 거버넌스 쪽은 어떤 조직에 추천해 달라고 할지 어떻게 정하면 좋겠습니까?
○○○ 위원	- 단체는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선정하고 그 위원회 위원 중 추천 받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예를 들면, 전주 지역 거버넌스 쪽에 활동 많이 하시고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하면, 그 단체에 추천 의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행정 같은 경우도 전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관련 타 지자체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공유하는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 그럼, 정책관리 쪽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 각 시나리오 팀별로 위원을 2배수로 공문을 보내서 참여한다고 하신 분들이 만약에 팀 인원보다 많으면 추첨방식으로 가고, 참여 일정하고 조건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대강 시나리오 워크숍의 기본적인 정보를 주고 또한 선정의 방식도 2배수로 해서 원하는 사람 중 추첨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형식 절차는 합리화될 것 같습니다. - 만약 2배수로 한다고 하면 각 기관명만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적 부분을 고려하여 풀을 좀 넓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먼저, 각의 분야별로 인원을 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먼저 인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워크숍 일정이 대강 언제 잡힐 것 같습니까?
○○○ 위원	- 9월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일반적으로 시나리오 워크숍은 연말에 진행하지 않습니까?
○○○ 위원	- 보통은 숙박해서 2박 3일 또는 1박 2일로 연말에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코로나 상황상 숙박은 어려우며 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일정을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주로 많이 합니다.

○○○ 위원	- 그럼 주말에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주말에 3일을 한다고 하면 금, 토, 일인데 일요일이 포함되면 참여자 뽑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 위원	- 제가 보기에는 토요일로 3주를 잡아야, 참여 가능한 분들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먼저 인원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그동안 공론화위원회에서 언론에 발표한 내용이 30명 안팎으로 알고 있으니 8명씩 해서 32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좋습니다. 그러면 한 부분에 8명으로 정하고, 논의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정책분야를 8명으로 한다면 의원님들은 2명이었습니다. - 행정 3명, 거버넌스 3명, 의회 2명으로 결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 모두	- 좋습니다.
○○○ 위원	- 그러면 행정에서는 현직이 아니고 전직입니다. - 그리고 행정은 전주시에다 맡깁니까?
○○○ 위원	-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 전주시가 추천하라고 하면 사실 시장이 추천한 것이 되거든요.
○○○ 위원	- 그러면 행정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위원	- 다른 지역 전직 공무원을 참여시키는 방법은 어떨까요?
○○○ 위원	- 만약 그러면 누가 추천을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전 다른 지역은 추천은 반대합니다. - 왜냐하면, 전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대표성이 떨어지고, 공신력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 위원	- 이것은 공론화위원회가 판단해서 추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행정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그다음 거버넌스는 거버넌스 조직은 몇 개 정도 될까요?
○○○ 위원	- 거버넌스 조직은 너무 방대하니까, 나중에 좀 더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요?
○○○ 위원	- 여섯 개 조직이 한 분씩 추천하게 해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6개 조직은 나중에 한 번 뽑아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 그러면 거버넌스 조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 독자적인 의사 기준과 사업계획을 가지면서 적어도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상근자가 있는 조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 그 조직에 대해서 ○○○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제가 거버넌스 조직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여 다음 회의 때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 좀 전에 2배수로 뽑자고 하셨잖아요? 행정3이면 공론화위원회에서 6명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 위원	- 공론화위원회에서 6명을 뽑고 나서 추첨을 하는 거죠.
○○○ 위원	- 그럼 의회도 2명이니까 4명을 추천해야겠네요?
○○○ 위원	- 아뇨, 의회는 의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것이죠.
○○○ 위원	- 근데 이것을 추첨해야 하는 겁니까?
○○○ 위원	- 왜냐면 위원회가 정하지 않으면 의사를 물어서 정할 수 없으니 2배수로 신청을 받으면 거기서 추첨을 하면 됩니다. - 공문을 다 보냈는데 추천을 안 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가 명단을 정할 수 없으니 여유 있게 받아서 추첨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위원	- 시의회 추천은 누가 하나요?
○○○ 위원	- 의장이 합니다.
위원장	-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다음에 논의하고, 다음 도시계획 분야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좀 전에 ○○○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위원을 선정하는 절차상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게 하는 절차와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가냐는 문제입니다. - 이것이 없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들어왔어도 나중에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니 내용적 측면과 과정의 측면을 어떻게 결합하냐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도내 대학별로 배치를 하면 풀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버넌스 조직처럼 대표성을 주어질 수 있는 영역을 표시하고 추천 공문을 보내면 된다고 봅니다. - 저는 큰 틀에서 보면 2번과 3번은 풀이 많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3배수 이내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 위원	- 예를 들면, 전주시 내 대학이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그렇게 되나요?
○○○ 위원	- 비전대 까지 있습니다.
○○○ 위원	- ‘도내 4년제 대학’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러면 도내 4년제 대학에 공문을 띄워서 도시계획, 조경 등의 전문가를 몇 명 이내로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 도내 4년제 대학으로 정하면 되겠습니까? - 그럼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등이 있습니다.
○○○ 위원	- 조금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시나리오 워크숍은 이해당사자, 정책결정권자, 전문가, 시민 4그룹이라고 놓고 보면, 공론조사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하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해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 저는 그래서 그냥 공을 공론화위원회에 넘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원칙을 정하되, 너무 넓히지 않고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	- 그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case by case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후보를 좀 더 넓혀서 한 30여 명 정도로 놓고 위원들에게 비공개로 후보자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제척하는 방식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도시계획 2인, 교통 2인, 환경 1인, 조경 1인, 경관 1인, 마지막으로 부동산 1인 일단 이렇게 분야별로 8인을 제시하겠습니다. 분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 네, 동의합니다.
○○○ 위원	- 제 생각에는 1인 하시는 분야는 2인 정도 해서 각 대학 해당 과에서 추천받으면 안 될까요?
위원장	- 일단 저 분야를 먼저 확정하겠습니다.
○○○ 위원	- 분야는 좋습니다. 후보가 너무 많으면 힘들 것 같고, 아니면 지명 풀을 위원회가 구성하고 제척 해서 갈 것인지,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추천받아 풀이 오면 거기서 추첨을 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풀을 많이 가져갈지 적게 가져갈지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그러면 8분인데, 저분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 방법은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추천을 받는 것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수용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예를 들면, 언론도 나중에 이 선정과정에 대해서 비뚤어지게 볼 수도 있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현실정치를 하시면서 선정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 ○○○ 위원님, ○○○ 위원님 의회 쪽과 언론 쪽의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 위원	-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 그런데 선정방식이 저들만의 행사 식으로 보이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복잡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공론화위원회가 안고 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관한 결정은 저희가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보통 학교 추천은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그 분이 하는 식으로 결정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각 과에서 논의해서 이분이 적합하다고 추천이 올 리는 만무하다고 봅니다. -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은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오히려 위원회에 위원장님들에게 추천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분들은 적어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위원분들에게 물어보고 추천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도시계획이나 교통은 각각의 위원회가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추천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위원	- 좋은 생각 같습니다. 학교로 보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교마다 추천하는 방식, 결정하는 방식 모두 다릅니다.
위원장	- 그러면 도시계획, 교통은 그렇게 하고, 환경, 조경, 경관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	- 환경은 경관심의위원회, 도시재생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 위원	- 실제 참여 여부에 물어보면 빠질 사람도 있을 겁니다. - 절차상의 문제와 대표성의 문제,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원회나 단체가 대표성이 있느냐도 주관적입니다. - 그래서 차라리 풀을 지정해서 추천 등을 받고, 그 안에서 하겠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든지, 또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참여 의사가 안 밝혀져 있는데 못 정해지잖아요. - 어차피 어떤 형태든 공문을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 ○○○ 위원님, 언론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 위원	- 밖에서 보기에선 대부분 시 위원회 소속이거든요. - 시와 연관성이 있는 시 우호적, 친화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 따라서 풀을 더 확장해서 그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랜덤하게 추첨을 하는 것이 대표성이나 절차적 공정성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풀을 만드는데 좀 더 집중하자는 말씀이지요?
○○○ 위원	- 그렇죠. - 대신에 이것은 공론화위원회가 책임지고 하자는 것이죠.
○○○ 위원	- ○○○ 위원님 이야기는 풀을 만들어서 그 풀 중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추첨하자는 말씀이지요?
○○○ 위원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러면 풀을 만드는 방법은 예를 들면, 저희 각 위원이 추천해서 풀을 만듭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만듭니까?
○○○ 위원	- 저는 추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분들도 각 분야에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리스트 한 뒤, 예를 들면 문자로 시나리오 워크숍을 할 건데,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그분들 중 추첨을 해서 세부 일정을 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각 위원님이 추천하기 전에 참여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추천을 해서 거기서 추첨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위원 모두	-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 각자 2~3배수 추천을 해서 그중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추천한다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천을 했는지 언급이 되어야 해서, 예를 들면, 전주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 전문성과 학식, 경험과 연륜이 있는 자 등으로 기준을 정해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다음 지역경제 쪽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 쪽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있을까요?
○○○ 위원	- 지역경제에는 자광의 이해관계자가 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위원장	- 저희가 저번에 지역경제에 대한 원칙이 있었죠? - 지역경제에 어떤 분들로 하자고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 거기서 소상공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한옥마을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패션상품 관련해서 대표할 수 있는 분들, 음식점체 등 소상공인, 다음에 상공회의소, 상공계, 건설업, 부동산업 등의 분야로 나눴습니다. - ○○○○○○, ○○○○는 공문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 소상공인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위원	- 예를 들면, 전문가 그룹은 대표성이라고 하기가 그렇지 않아요? - 이해관계인은 공문도 보내는 과정 등이 더 활발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원장	- ○○○○○○에는 공문을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인원을 정해보죠. - ○○○○○○는 한 분이면 괜찮을까요?
○○○ 위원	- 한 명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일단 3인으로 하겠습니다. - 상공계는 2인, 관광 2인으로 하여 총 8인으로 하면 어떨까요? - 그래서 ○○○○○○는 ○○○○○○에 추천을 부탁하고, 소상공인은 어떻게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	- 소상공인은 각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	- ○○○○○가 있고요, ○○○○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 꼭 장사하시거나 대표성 있는 분들보다는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논의가 저번에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사회적 경제는 자광의 개발에 관하여 직접인 관계는 없습니다. -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야는 ○○○이 맞습니다. - ○○○은 패션상품 쪽에 들어갑니다. - ○○○○○○○가 법적단체는 맞습니다.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예전부터 해오던 상인회가 있을 겁니다.
○○○ 위원	- ○○○○○○○가 상인회입니다.
○○○ 위원	- 그럼 ○○○○○○○가 있고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 있죠.
○○○ 위원	- 법적단체가 아니라 임의단체입니다.
○○○ 위원	- 대한방직 개발은 도심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심에 있는 분이 한 분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	- 큰 그룹별로 보면 3번째잖아요. - 여기는 단체에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원칙으로 단체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단체에 공문을 보낸다는 원칙 하에 단체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 여기서는 ○○○○○는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다음에 어려우면 밑에 상공계를 먼저 하면 됩니다.
위원장	- 그다음으로 주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저번에 시민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 위원	- 잠깐만요. 위에 2번째 카테고리에 부동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그건 부동산 개발 쪽이고, 밑에는 뭔가요?
위원장	-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 다음, 시민 그룹은 지난번 원칙이 인근 주민 2인, 주변 주민 2인, 각각 남녀로 한다고 했습니다. - 시민단체 2인, 주민자치협의회 2인으로 하면 8인이 됩니다. - 그래서 인근 및 주변 주민은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추천하고, 시민단체 2인, 주민자치협의회 2인은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 위원	- 주민자치협의회는 해당 지역의 인근입니까?
○○○ 위원	-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연합이 주민자치협의회입니다.
○○○ 위원	- 주민자치협의회에 추천 의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대한방직 인근에 있는 사람이 들어 올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들어 올 수도 있겠네요.
○○○ 위원	- 한 분은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해당 지역과 비 지역에 한 분씩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기에 청년, 대학생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청년 및 대학생은 저번에 미래세대에 대하여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고 했으니 나중에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청년은 40대까지이므로 청소년을 미래세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년을 시민단체 쪽에서 한 번 추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시민단체가 둘인데요. 언론단체를 하나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 왜냐하면, 이 큰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공론화위원회에 한 명만 들어가 있는 것에 불만이 있습니다.
○○○ 위원	- 시민단체 2인에 언론단체 1인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 위원	- 언론이 이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그래서 언론 쪽을 1인 참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시민 및 언론단체 이렇게 해서 2인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언론단체는 언론협회에 추천을 의뢰하면 되고, 시민단체는 어느 곳에 의뢰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	- 그렇게 되면 시민단체는 1인 밖에 없게 됩니다.
○○○ 위원	- 그러면 시민단체를 3인으로 갈까요? 그럼 9명이어서 안 되네요.
○○○ 위원	- 주민자치협의회를 1인으로 줄이면 되죠. - 왜냐하면, 주변 주민에 이미 1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위원	- 어차피 주민자치협의회가 1인이라고 하면, 해당 지역의 위원장님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라는 말을 빼고, 주민자치협의회에 1인을 추천해달라고 하고, 해당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참여 의사가 없으시면 다른 지역위원장님을 추천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주민자치협의회는 그렇게 하고, 시민단체는 어느 곳에 요청하면 될까요?
○○○ 위원	- 주민 4명을 2명은 인근, 2명은 일반시민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인근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인근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만 결론을 우선 내리도록 하죠.
○○○ 위원	-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 왜냐하면, 여기는 또 논의 구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만 해놓으면 각자 논의해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안에서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위원	- 참여자 구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 논란도 많고 이후에 공론화가 잡음이 생기면 참여자 구성부터 비난이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정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한가지 짚어야 할 점은 이해관계자나 특히 지역경제 그룹에서 의견이 많이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제 생각에는 만약에 갈등이 예견된다면 이해관계자 토론을 할 때, 각각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뭉쳐서 분임토의를 할 때, 그 영역 이외의 분들이 한, 두 분이 섞이면 훨씬 토론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 그래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예를 들면 다 분야를 나눴잖아요? 특히 지역경제 같은 분야에서는 의견이 많이 엇갈릴 것 같으면, 정말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일반인이 포함된다면 그분들이 대화에 있어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 주시거든요. - 그분들이 있으면 관점의 변화를 촉진 시켜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 그래서 각 테이블에 한 분만이라도 참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문제는 저희가 32명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각 분야 별로 1명씩 줄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분 1명씩을 추가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 일단은 ○○○ 위원님께 정책 도시관리그룹의 거버넌스 단체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그래서 공문을 보낼 단체를 다음 회의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다음 전문가 분야에 있어서 각 위원님이 추천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세 번째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나열해보고 그중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다음 주민 분야에서도 어떤 시민단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